청년세대의 가족구성 및 자녀 의향과 생애전망: 성별 차이를 중심으로

2024. 12. 27
성인지통계센터 조선미 부연구위원

1) 우리나라 저출생·고령화의 인구위기는 세대와 성별 불균형이 심화되는 양상으로 나타남. 인구구조 변화와 함께 급격한 가족변화가 나타나고 있는데, 20~30대 청년세대는 이 변화의 주축으로 볼 수 있음.

2) 저출생 요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청년세대의 삶과 관련된 현황 및 인식을 파악해야 함. 청년층의 결혼, 자녀출산 등에 대한 가족구성 의향을 중심으로 청년층이 자신의 삶에서 기대하고 실현하고자 하는 생애전망과의 불일치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3) 특히 청년여성과 청년남성은 가족구성에 대한 기대와 그 요건과 일-가족에 대한 생애전망 기대에 있어 차이를 나타낼 것임. 청년층을 중심으로 성평등 인식이 증가하는 가운데, 우리사회가 청년층이 기대하고자 하는 성평등한 생애기회를 충분히 제공하고 있는지 청년층의 경험과 인식, 기대를 살펴볼 필요가 있음.

4) 동 연구는 청년세대의 가족구성 의향 및 자녀 의향에 따른 삶과 생애전망 특성의 성별 차이를 분석하였음. 분석영역으로 교육과 일자리 등 생애기반 여건과 삶의 질, 미래전망과의 관계를 살펴보았음.

5) 분석자료는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에서 실시하고,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조사 수행하였던 「2022년 청년 삶 실태조사」의 원자료를 활용하였음.

Ⅰ. 서론

오늘날 청년세대는 결혼·출산 중심의 가족구성에서 벗어나 다양한 가족과 친밀성을 추구하고 있으며, 특히 청년여성은 일과 가족에 대한 성평등한 생애전망을 추구함. 본 연구는 「2022년 청년 삶 실태조사」원자료 분석을 통해 청년층의 가족구성 의향 및 생애전망의 성별차이를 살펴보고자 함.

○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출산율 추세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합계출산율이 2023년 0.72명에서 2024년 3분기 0.76명으로 최근 일부 반등이 나타났음(통계청 보도자료, 2024.11.27.:3). 한편, 저출생·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는 곧 가족을 구성하는 방식과 개념, 가치관에 대한 근본적 변화와도 맞물려 나타나고 있음.

○ 오늘날 청년세대들은 기존의 결혼 및 출산 중심의 가족구성 방식에서 벗어나 다양한 친밀성을 추구하고 있으며, 특히 청년여성들을 중심으로 성평등한 관계 속에 일·가족의 생애를 기획하고 친밀성을 재구성하고자 하는 지향 및 실천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음. 따라서 우리 사회의 저출생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이와 같은 변화를 이끌고 있는 새로운 세대의 일과 가족에 대한 생애전망의 욕구를 파악할 필요가 있음.

- 최근 선행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여성은 대체로 남성보다 결혼, 출산의 당위성을 낮게 인식하고 있음(통계청 「2024년 사회조사」* 결과, “결혼은 반드시 해야한다”의 혼인의 당위성 문항에 대해 20~29세 여성 32.2%, 남성 46.8% 30~39세 여성 37.0%, 남성 50.2%만 긍정 견해)
- 특히 청년여성들은 일과 가족에 있어 성평등한 역할의 배분을 더 높게 지향하고 있음(여성가족부, 「2021년 양성평등실태조사」** 결과, “가족의 생계는 주로 남성이 책임져야 한다”의 전통적 성역할 지지도 문항에 대해 19~29세 여성 17.5%, 남성 9.6%, 30~39세 여성 30.0%, 남성 15.1%만 동의함).

  * 출처: 통계청 KOSIS, 「2024년 사회조사」, 결혼에 대한 견해(13세 이상 인구),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SSFA060R&conn_path=I2 (최종 접속일: 2024.12.13.).

  ** 출처: 여성가족부 보도자료(2022.4.19.). [별첨]2021년 양성평등 실태조사 주요 결과 요약. p.2.

○ 저출생 현상의 요인은 다양하지만, 정책설계 과정에서 가족구성 의향과 관련된 청년층의 다양한 욕구를 반영하고, 특히 청년여성이 가족구성의 과업을 실천할 때 경험하게 되는 구조적 불평등 문제를 해소할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오늘날 20~30대 청년층은 남녀 모두 노동중심적 생애를 지향하지만(김은지 외, 2019), 남성은 여전히 일자리와 소득과 같은 등 생산인구의 역할을, 여성은 가족돌봄과 출산과 같은 재생산의 역할을 가정하는 성별화된 생애과업이 주어지고 있음. 청년여성들이 결혼, 자녀출산 등 가족구성과 관련된 생애를 실천할 때 경력단절, 일가정양립 부담, 노동시장 성과에 대한 높은 성 격차 등 불이익과 기회실현의 제약은 곧 출산기피의 선택으로 이어지게 됨.
- 김은지 외(2019:224-225)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청년여성들은 결혼 및 자녀갖기의 중요한 전제조건으로서 경제적 요건보다 성평등한 관계 조성(공평한 가사분담, 파트너 양육 참여, 파트너의 육아휴직 가능성 등)의 노력을 주된 요건으로 선택하였는데, 이는 가족과 파트너십, 돌봄의 과정을 보다 성평등한 관계 속에

재구성함으로써 일과 가족의 생애전망 실현에 있어 성 격차를 줄이고 개인들의 자기선택에 따른 가족구성 및 재생산 욕구를 지원하는 것이 중요한 방향임을 시사함.

○ 본 연구는 국무조정실·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수행한 「2022년 청년 삶 실태조사」* 원자료 분석을 토대로 청년층의 가족구성 의향과 미래전망 인식을 살펴봄. 동 조사는 '향후 결혼 계획(배우자가 없는 응답자)'과 '자녀를 가질 의향(전체 응답자)'을 묻고 있어 가족형태에 따른 결혼의향과 자녀출산 의향을 분류하여 가족구성에 대한 인식 및 가치관을 분석할 수 있음.

* 「청년 삶 실태조사」: 「청년기본법([시행 2023. 9. 22.] [법률 제19253호, 2023. 3. 21., 일부개정])」 제11조(청년 실태조사 등)로 2년마다 수행되는 조사로, 전국 15,000가구의 만19~34세 청년세대를 대상으로 주거, 건강, 교육훈련, 노동, 관계 및 참여, 사회인식/미래설계 등을 조사함(정세정 외, 2022:67).

- 가족구성 의향: '미혼(비혼)' 또는 '이혼·사별(별거 제외)' 등 현재 배우자가 없는 청년층을 대상으로, 향후 결혼 및 출산에 의한 가족구성 의향을 살펴보기 위해 ①'결혼의향 및 자녀의향 둘 다 없음(결혼의향 무, 자녀의향 무)', ②'결혼의향 없으나 자녀의향 있음(결혼의향 무, 자녀의향 유)', ③'결혼의향 있으나 자녀의향 없음(결혼의향 유, 자녀의향 무)', ④'결혼의향 및 자녀의향 둘 다 있음(결혼의향 유, 자녀의향 유)'로 구분함.
- 자녀 의향: '청년부부' 또는 '청년(한)부모와 그 자녀'로 구성된 청년가구주 가구*의 청년층을 대상으로 출산(추가출산) 의향을 살펴보기 위해 '①현재 자녀가 없고, 앞으로도 자녀를 가질 의향이 없는 경우(무자녀, 자녀의향 무)', '②현재 자녀가 있으나, 추가자녀를 가질 의향이 없는 경우(유자녀, 자녀의향 무)', '③현재 자녀가 없으나, 자녀를 가질 의향이 있는 경우(무자녀, 자녀의향 유)', '④현재 자녀가 있고, 추가자녀를 가질 의향이 있는 경우(유자녀, 자녀의향 유)'로 구분함.

  * 청년가구주 가구: 부모로부터 독립된 가구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청년가구의 출산(추가출산) 의향을 파악하기 위해, 가구주가 부모 등 청년이 아닌 응답자 또는 부모와 동거 중인 응답자는 제외한 '청년부부가구(부부 모두가 19~34세 청년인 2인 가구)' 또는 '청년부부와 자녀(19~34세 청년부부와 그 자녀로 이루어진 가구, 또는 또는 청년 한부모와 그 자녀로 구성된 가구, 다른 가구원 없음)'로 구성된 청년가구주에 한정하여 분석함(정세정 외, 2022:111).

〈표 Ⅰ-1〉 정책 분석대상 정의(19~34세 청년)

정책 분석대상	구분		항목
배우자 없는 청년 (미(비)혼, 이혼·사별 청년 등)	가족구성 의향	결혼의향 및 자녀의향 둘 다 없음	결혼의향 무, 자녀의향 무
		결혼의향 없으나 자녀의향 있음	결혼의향 무, 자녀의향 유
		결혼의향 있으나, 자녀의향 없음	결혼의향 유, 자녀의향 무
		결혼의향 및 자녀의향 둘 다 있음	결혼의향 유, 자녀의향 유
배우자 또는 자녀가 있는 청년가구주의 청년 (기혼부부, 기혼(한)부모+자녀 등)	자녀 의향	자녀 없고, 자녀의향 없음	무자녀, 자녀의향 무
		자녀 있으나, 추가자녀 의향 없음	유자녀, 자녀의향 무
		자녀 없으나, 자녀의향 있음	무자녀, 자녀의향 유
		자녀 있고, 추가자녀 의향 있음	유자녀, 자녀의향 유

Ⅱ. 청년세대와 결혼, 출산에 의한 가족구성 의향

1. 청년세대의 가족구성 의향과 성별 차이

청년여성은 청년남성보다 결혼과 출산을 통한 가족구성 의향이 전반적으로 낮았음.

○ 청년세대의 가구구성 현황을 살펴본 결과, 청년여성은 기혼상태(유배우)이거나, 청년부부 또는 청년부부와 자녀로 구성된 독립된 가족을 갖고 있는 비율이 좀 더 높았음.

- 연령은 전체 기준 19~24세 35.3%, 25~29세 34.1%, 30~34세 30.6%로 균등하게 나타남.
- 혼인상태별로는 유배우(사실혼 포함)가 청년여성 21.7%, 청년남성 13.8%로 여성이 7.9%p 더 많았음.
- 가구유형별로는 청년남성은 상대적으로 '청년독거가구(24.7%, ▲4.3%p)', '부모(가구주)+미혼(비혼) 청년가구(55.5%, ▲4.7%p)'의 비중이 높았고, 청년여성은 '청년부부+자녀가구(7.4%, ▲2.6%p)'와 '그 외 가구(부모(가구주)+기혼, 이혼, 별거, 사별 청년가구, 기타 청년·비청년 가구주 가구 등)(14.3%, ▲6.7%p)'의 비중이 더 높았음.

〈표 Ⅱ-1〉 조사대상 청년세대 현황

(단위: %, 명)

구분			청년여성	청년남성	전체
연령	19~24세		35.5	35.1	35.3
	25~29세		33.8	34.5	34.1
	30~34세		30.7	30.4	30.6
혼인상태	유배우(사실혼 포함)		21.7	13.8	17.5
	미(비)혼		77.4	85.7	81.8
	이혼·별거·사별		1.0	0.5	0.7
가구유형	청년 가구주	청년독거가구	20.4	24.7	22.6
		청년부부가구	7.1	7.4	7.2
		청년(한)부모+자녀가구	7.4	4.8	6.0
	부모(가구주)+미(비)혼청년가구		50.8	55.5	53.3
	그 외 가구		14.3	7.6	10.8
전체 (사례수)			100.0 (7,108)	100.0 (7,858)	100.0 (14,966)

주 : 가중치 부여

○ 배우자가 없는 청년에게 결혼, 출산에 의한 가족구성 의향을 살펴본 결과, 청년여성은 청년남성보다 결혼과 출산에 의한 가족구성 의향이 전반적으로 낮게 나타났음.

- 미혼(비혼), 이혼·사별(별거 제외) 등 무배우 청년일 경우, 결혼 및 자녀 의향이 모두 있는 집단은 청년여성이 54.7%, 청년남성의 70.3%보다 15.6%p 더 낮았음.
- 배우자가 없는 청년 중 결혼의향이 없으나 자녀를 가질 의향이 있는 집단도 전체 1.3%(178명)로 나타났음. 이들 집단은 혼외출산, 비혼출산, 비혼입양 등 제도화된 파트너십(혼인)에 의존하지 않는 출산·양육의 형태를 의미하며, 다양한 가족구성 형태 지원의 수요를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배우자가 있는 청년에게 결혼, 출산에 의한 가족구성 의향을 살펴본 결과, 청년여성은

청년남성보다 출산 또는 추가출산에 대한 의향이 전반적으로 낮게 나타났음.

- 기혼부부이거나 청년(한)부모의 청년가구주일 경우, 자녀 또는 추가자녀에 대한 출산의 의향이 있는 집단은 청년여성이 전체 55.5%로 청년남성의 62.2%보다 6.6%p 더 낮았음.
- 특히 청년여성 중 현재 자녀가 있으나 추가자녀에 대한 출산 의향이 없는 경우는 33.0%로 나타났으며, 이는 남성의 23.1%보다 9.9%p 차이가 나는 등 크게 낮았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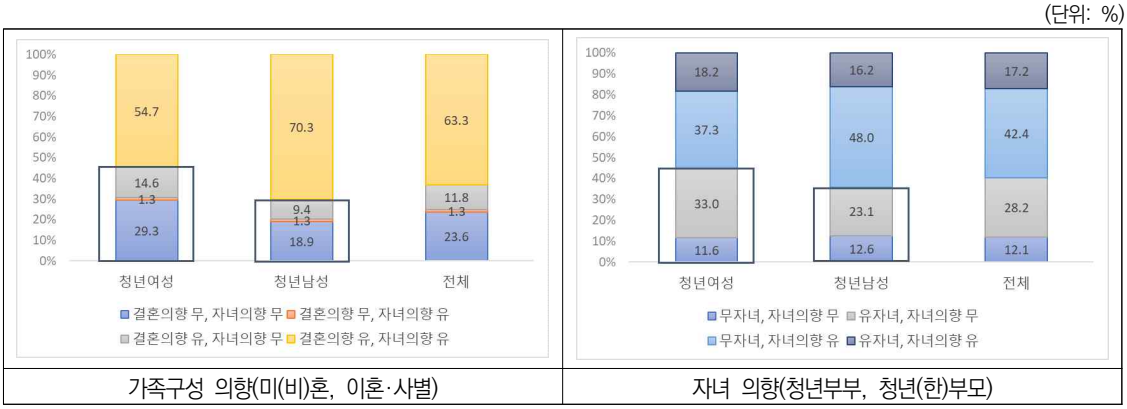
〈표 Ⅱ-2〉 청년세대와 결혼, 출산에 의한 가족구성 의향

(단위: %, 명)

구분		비율(사례 수)		
		청년여성	청년남성	전체
가족구성 의향 (미(비)혼, 이혼·사별)	결혼의향 무, 자녀의향 무	29.3(1,767)	18.9(1,389)	23.6(3,155)
	결혼의향 무, 자녀의향 유	1.3(79)	1.3(98)	1.3(178)
	결혼의향 유, 자녀의향 무	14.6(882)	9.4(692)	11.8(1,574)
	결혼의향 유, 자녀의향 유	54.7(3,297)	70.3(5,166)	63.3(8,463)
	전체	100.0(6,025)	100.0(7,345)	100.0(13,370)
자녀 의향 (청년부부, 청년(한)부모)	무자녀, 자녀의향 무	11.6(59)	12.6(60)	12.1(119)
	유자녀, 자녀의향 무	33.0(169)	23.1(109)	28.2(278)
	무자녀, 자녀의향 유	37.3(191)	48.0(227)	42.4(418)
	유자녀, 자녀의향 유	18.2(93)	16.2(77)	17.2(170)
	전체	100.0 (513)	100.0 (472)	100.0 (985)

주: 가중치 부여

(단위: %)



가족구성 의향(미(비)혼, 이혼·사별) 자녀 의향(청년부부, 청년(한)부모)

[그림 Ⅱ-1] 청년세대와 결혼, 출산에 의한 가족구성 의향

2. 사회경제적 특성과 가족구성 의향의 성별 차이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청년여성과 청년남성 모두 결혼 및 자녀출산 의향이 증가하였으며. 경제활동 상태에서는 청년여성은 실업 및 비경제활동 상태일 때 가족구성 의향이 약화되는 경향이 두드러짐.

○ 교육수준에 따른 가족구성 의향을 살펴본 결과, 전반적으로 대졸 이상의 학력이 결혼, 출산에 의한 가족구성 의향에 긍정적인 영향이 나타났음. 한편, 고졸이하 청년여성은 동 학력의 청년남성보다 가족구성 의향이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난 점이 특징적이었음,

- 미혼(비혼), 이혼·사별 등 현재 배우자가 없는 집단에서 가족구성 의향을 살펴본 결과, 청년여성은 대졸 이상 졸업생(58.0%)이 재학생(50.1%)보다 결혼 및 자녀 의향의 비율이 높지만, 청년남성은 대졸 이상 졸업생(72.9%)과 재학생(71.2%) 간의 차이가 상대적으로 작았음.
- 배우자가 있거나 자녀가 있는 청년가구주 응답자를 대상으로 자녀를 가질 의향을 살펴본 결과, 최종학력이 높아질수록 자녀의향을 가진 비율이 남녀 모두 증가하였는데, 청년여성은 고졸이하와 대졸 이상의 학력 사이에서 '자녀가 없으나 자녀의향이 있는 경우(고졸이하 20.7% → 대졸이상 40.8%)'와, 청년남성은 '자녀가 있으나 추가자녀 의향이 있는 경우(고졸이하 8.7% → 대졸이상 18.5%)'에서 가장 뚜렷한 증가가 나타나 교육수준은 자녀출산 의향에 긍정적 영향이 나타났음.
- 청년여성과 청년남성 모두 고졸이하보다 대졸이상 학력일때 가족구성 의향과 자녀출산 의향이 모두 높았으며, 특히 고졸이하 집단의 경우 청년여성은 청년남성보다 가족구성 및 자녀출산 의향이 모두 높게 나타나 남성이 여성보다 학력수준에 따른 영향을 크게 받는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음.

〈표 Ⅱ-3〉 교육상태에 따른 가족구성 의향(미(비)혼, 이혼·사별)

(단위: %, 명)

구분	청년여성				청년남성			
	재학생	졸업생 (고졸이하)	졸업생 (대졸이상)	전체	재학생	졸업생 (고졸이하)	졸업생 (대졸이상)	전체
결혼의향 무, 자녀의향 무	34.0	32.6	26.7	29.3	18.3	24.1	16.9	18.9
결혼의향 무, 자녀의향 유	1.6	1.9	1.1	1.3	0.9	2.0	1.3	1.3
결혼의향 유, 자녀의향 무	14.3	17.7	14.1	14.6	9.6	10.3	8.9	9.4
결혼의향 유, 자녀의향 유	50.1	47.9	58.0	54.7	71.2	63.6	72.9	70.3
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사례 수)	(1,656)	(888)	(4,129)	(6,673)	(1,795)	(1,510)	(3,392)	(6,697)

주: 가중치 부여

〈표 Ⅱ-4〉 교육상태에 따른 자녀 의향(청년부부, 청년(한)부모)

(단위: %, 명)

구분	청년여성			청년남성		
	졸업생 (고졸이하)	졸업생 (대졸이상)	전체	졸업생 (고졸이하)	졸업생 (대졸이상)	전체
무자녀, 자녀의향 무	13.0	11.1	11.4	19.0	10.7	12.4
유자녀, 자녀의향 무	49.7	29.6	33.1	26.4	22.5	23.3
무자녀, 자녀의향 유	20.7	40.8	37.3	45.9	48.3	47.8
유자녀, 자녀의향 유	16.6	18.5	18.2	8.7	18.5	16.4
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사례 수)	(106)	(490)	(596)	(79)	(299)	(378)

주: 1. 가중치 부여 2. 사례 수가 작아 재학생 집단은 제외함

○ 경제활동 상태에 따라 살펴보면, 청년여성은 청년남성보다 취업자 대비 비취업 상태에서 가족구성 의향과 자녀출산 의향이 약화되는 경향이 보다 뚜렷하게 나타났음. 이와 같은 결과는 청년여성에게 경제적 독립 여부가 가족구성 의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점을 시사함.

- 가족구성 의향에서, 청년여성은 결혼 및 자녀의향이 모두 없는 경우가 실업자(39.3%)와 비경제활동(35.4%)에서 높았으며, 취업자는 26.6%로 상대적으로 낮았음. 청년남성 또한 실업자(16.8%)와 비경제활동(22.1%)일 때 전반적으로 높았으나, 여성보다 경제활동 상태에 덜 영향받는 것으로 나타남.
- 자녀의향에서, 자녀가 있으나 추가자녀 의향이 없는 청년여성은 취업자가 29.2%, 비취업자가 40.0%로 10.8%p 차이가 있었고, 반대로 자녀가 없으나 향후 자녀를 가질 의향이 있는 청년여성은 취업자가 43.3%, 비취업자가 26.1%로 17.2%p의 큰 차이를 나타냈음.

〈표 Ⅱ-5〉 경제활동 상태에 따른 가족구성 의향(미(비)혼, 이혼·사별)

(단위: %, 명)

구분	청년여성				청년남성			
	취업자	실업자	비경제활동	전체	취업자	실업자	비경제활동	전체
결혼의향 무, 자녀의향 무	26.6	39.3	35.4	29.3	16.8	27.0	22.1	18.9
결혼의향 무, 자녀의향 유	1.4	1.0	1.1	1.3	1.4	1.5	1.2	1.3
결혼의향 유, 자녀의향 무	15.3	7.9	13.7	14.6	10.2	7.0	8.2	9.4
결혼의향 유, 자녀의향 유	56.6	51.8	49.8	54.7	71.6	64.6	68.5	70.3
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사례 수)	(4,741)	(245)	(1,688)	(6,673)	(4,269)	(286)	(2,142)	(6,697)

주: 가중치 부여

〈표 Ⅱ-6〉 경제활동 상태에 따른 자녀 의향(청년부부, 청년(한)부모)

(단위: %, 명)

구분	청년여성			청년남성		
	취업자	비취업자	전체	취업자	비취업자	전체
무자녀, 자녀의향 무	13.1	8.7	11.6	12.3	20.6	12.6
유자녀, 자녀의향 무	29.2	40.0	33.0	22.8	30.6	23.1
무자녀, 자녀의향 유	43.3	26.1	37.3	48.1	44.9	48.0
유자녀, 자녀의향 유	14.4	25.2	18.2	16.7	3.9	16.2
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사례 수)	(393)	(210)	(603)	(368)	(14)	(382)

주: 1. 가중치 부여 2. 비취업자=실업자+비경활

○ 개인소득과 부채 현황을 살펴보면, 미(비)혼 및 이혼·사별 상태일때 결혼 및 출산 의향이 모두 있는 집단에서 가구소득이 가장 높았고, 자녀의향은 없으나 결혼의향만 있는 집단에서 개인부채가 가장 높게 나타났음. 한편, 청년부부이거나 청년(한)부모 집단에서 자녀의향을 살펴본 결과, 추가자녀 의향이 없는 남성을 중심으로 가장 높은 소득 및 부채 수준이 나타남.

- (소득 측면) 모든 집단에서 청년남성이 청년여성보다 소득이 높았는데, 청년부부 또는 청년부모 집단을 중심으로 성별 격차가 더 커짐. 이는 여성이 결혼, 출산 등 가족중심 생애를 이행할때 일자리에서의 성 격차가 심화되는 상황을 의미함. 무배우 청년에서는 결혼·출산 의향이 모두 있는 집단에서 소득이 가장 높았음.
- (부채 측면) 청년남성은 청년여성보다 전반적으로 부채가 높았는데, 특히 결혼 의향이 있으나 자녀의향이

없을 경우, 자녀가 있으나 추가출산 의향이 없는 남성을 중심으로 부채 부담이 두드러짐.

- (경제적 불균형) 소득 격차는 성별 간 경제활동에서의 구조적 차이를 반영하며, 부채의 성별 차이는 가족구성 계획에 따른 재정적 책임과 부담의 차이를 시사함.

〈표 II-7〉 개인소득(평균)에 따른 가족구성 의향(미(비)혼, 이혼·사별)

(단위: 만원, 명)

구분	전체			비경활 제외		
	청년여성	청년남성	전체	청년여성	청년남성	전체
결혼의향 무, 자녀의향 무	1,668.38	1,667.48	1,667.99	2,166.72	2,451.14	2,284.49
결혼의향 무, 자녀의향 유	1,858.75	1,849.15	1,853.44	2,247.43	2,402.92	2,328.90
결혼의향 유, 자녀의향 무	2,046.48	2,092.41	2,066.65	2,528.37	2,759.91	2,626.95
결혼의향 유, 자녀의향 유	2,123.22	2,079.99	2,096.85	2,592.81	2,810.66	2,719.98
전체	1,975.28	2,000.11	1,988.92	2,462.17	2,737.54	2,607.04
(사례 수)	(6,006)	(7,317)	(13,323)	(4,235)	(4,701)	(8,936)

주: 1. 가중치 부여 2. 2021년 연간소득 기준

〈표 II-8〉 개인소득(평균)에 따른 자녀 의향(청년부부, 청년(한)부모)

(단위: 만원, 명)

구분	전체			비경활 제외		
	청년여성	청년남성	전체	청년여성	청년남성	전체
무자녀, 자녀의향 무	2,895.72	4,137.07	3,519.10	3,337.93	4,115.38	3,766.69
유자녀, 자녀의향 무	1,817.93	4,754.65	2,970.40	2,942.85	4,662.82	3,823.09
무자녀, 자녀의향 유	2,671.37	4,038.47	3,413.23	3,207.39	4,118.29	3,752.03
유자녀, 자녀의향 유	1,427.37	4,181.50	2,671.59	2,380.29	4,187.67	3,472.66
전체	2,189.86	4,239.60	3,173.07	3,027.92	4,254.87	3,728.41
(사례 수)	(513)	(472)	(985)	(330)	(440)	(770)

주: 1. 가중치 부여 2. 2021년 연간소득 기준

〈표 II-9〉 개인부채(평균)에 따른 가족구성 의향(미(비)혼, 이혼·사별)

(단위: 만원, 명)

구분	전체			비경활 제외		
	청년여성	청년남성	전체	청년여성	청년남성	전체
결혼의향 무, 자녀의향 무	512.75	601.41	551.74	635.32	934.68	759.39
결혼의향 무, 자녀의향 유	504.84	713.51	614.95	585.53	1009.65	793.79
결혼의향 유, 자녀의향 무	872.20	1086.30	967.49	1089.92	1436.63	1242.25
결혼의향 유, 자녀의향 유	759.51	737.69	746.12	945.60	1011.89	984.53
전체	700.19	744.77	724.81	877.18	1042.10	964.59
(사례 수)	(5,753)	(7,097)	(12,850)	(4,042)	(4,557)	(8,599)

주: 1. 가중치 부여 2. 2021년 12월 31일 부채 기준

〈표 II-10〉 개인부채(평균)에 따른 자녀 의향(청년부부, 청년(한)부모)

(단위: 만원, 명)

구분	전체			비경활 제외		
	청년여성	청년남성	전체	청년여성	청년남성	전체
무자녀, 자녀의향 무	2296.43	3620.70	2956.66	2623.90	3840.38	3291.83
유자녀, 자녀의향 무	1850.15	8788.44	4568.38	2964.02	8915.80	6036.07
무자녀, 자녀의향 유	1335.03	6018.62	3884.98	1646.84	5861.48	4158.55
유자녀, 자녀의향 유	823.46	5541.35	2963.06	1368.94	5587.67	3932.56
전체	1518.63	6278.73	3805.31	2111.93	6282.40	4496.26
(사례 수)	(496)	(458)	(954)	(320)	(427)	(747)

주: 1. 가중치 부여 2. 2021년 12월 31일 부채 기준

청년여성은 일자리 불안정 경험과 우울 증상이 가족구성 의향과 부정적 관계가 뚜렷하게 나타나지만, 청년남성은 이와 같은 경향이 나타나지 않음.

○ 일자리 불안정 경험(지난 12개월 동안 원치 않는 이유로 소득 없이 쉰 경험)에 따른 가족구성 의향을 살펴본 결과, 청년여성은 경제적 요인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향이 나타났음.

- 일자리 불안정 경험은 가족구성 의향보다 청년가구주를 대상으로 자녀의향을 물었을 때 더 뚜렷한 성별 차이가 나타났음. 청년여성 경우 "현재 자녀가 없고, 추가 자녀 의향 없음"일 때 일자리 불안정을 경험한 비율은 21.5%로 가장 높아 경제적 안정성이 자녀의향에 미치는 영향이 뚜렷하였음. 반면 청년남성은 청년여성보다 일자리 불안정 경험에 따른 자녀의향의 변화의 폭이 크지 않았으나, 다만 자녀가 있으나 추가출산 계획이 없는 집단(유자녀, 자녀의향 무)에서 일자리 불안정 경험 비율이 9.8%로 가장 높았음.
- 한편 청년여성은 미(비)혼, 이혼·사별 등 배우자가 없는 집단 가운데서 “결혼의향 무, 자녀의향 유” – 즉, 비혼출산 의향이 있는 집단에서 일자리 불안정 경험률(25.2%)이 가장 높게 나타났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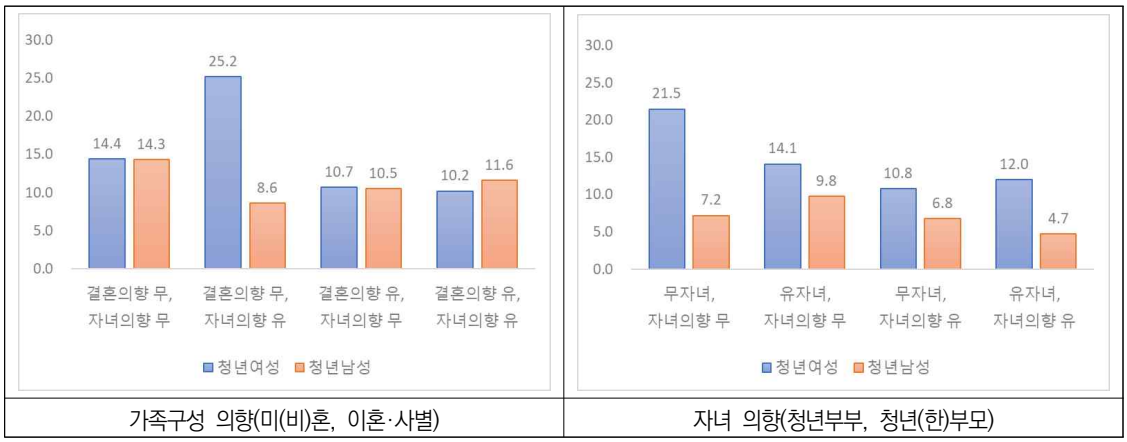
〈표 II-11〉 일자리 불안정 경험에 따른 가족구성 및 자녀 의향

(단위: %, 명)

구분	가족구성 의향(미(비)혼, 이혼·사별)			구분	자녀 의향(청년부부, 청년(한)부모)		
	청년여성	청년남성	전체		청년여성	청년남성	전체
결혼의향 무, 자녀의향 무	14.4	14.3	14.3	무자녀, 자녀의향 무	21.5	7.2	13.9
결혼의향 무, 자녀의향 유	25.2	8.6	16.5	유자녀, 자녀의향 무	14.1	9.8	11.9
결혼의향 유, 자녀의향 무	10.7	10.5	10.6	무자녀, 자녀의향 유	10.8	6.8	8.5
결혼의향 유, 자녀의향 유	10.2	11.6	11.0	유자녀, 자녀의향 유	12.0	4.7	7.5
전체	11.6	11.9	11.8	전체	13.5	7.2	9.9
(사례 수)	(572)	(522)	(1,094)	(사례 수)	(57)	(27)	(84)

주: 1. 가중치 부여 2. 각 집단별 일자리 불안정 경험=있다(%)

(단위: %)



가족구성 의향(미(비)혼, 이혼·사별) | 자녀 의향(청년부부, 청년(한)부모)

[그림 II-2] 일자리 불안정 경험에 따른 가족구성 및 자녀출산 의향

○ 건강상태에 따른 가족구성 의향을 살펴본 결과, 청년남녀 모두 결혼 및 자녀 의향이 없을 때 더 높은 우울 증상과 낮은 주관적 건강 인식을 나타냈음. 단, 자녀출산 의향에서는 청년여성의 경우 유사한 경향이 유지되지만, 청년남성의 경우 현재 자녀가 없고 앞으로도 자녀계획이 없을 때 주관적 건강인식이 더 높게 나타나는 등 여성과 차이가 있었음.

- (우울 증상) 청년여성은 대부분의 집단에서 남성보다 높은 우울 증상을 보이며, 특히 결혼 의향이 없는 여성(미(비)혼, 이혼·사별 집단)과 현재 자녀가 없고 자녀의향이 없는 여성(청년부부, 청년(한)부모 집단)에게 대체로 우울 증상이 있는 응답자 비율이 높게 나타남. 청년남성 경우 결혼의향이 없으나 자녀의향이 있을때(미(비)혼, 이혼·사별 집단) 비교적 우울증상이 있는 응답자 비율이 높게 나타남.
- (주관적 건강 인식) 대체로 결혼 및 자녀 의향이 높을수록 주관적 건강 상태가 개선되는 경향이 나타나는 가운데, 청년가구주의 자녀의향 경우 현재 자녀가 없고 앞으로도 자녀 의향이 없는 청년남성에게 주관적 건강 수준이 가장 높게 나타났음.

〈표 Ⅱ-12〉 건강상태에 따른 가족구성 의향(미(비)혼, 이혼·사별)

(단위: %, 명)

구분	우울 증상			주관적 건강 인식(좋음)		
	청년여성	청년남성	전체	청년여성	청년남성	전체
결혼의향 무, 자녀의향 무	11.8	8.4	10.3	45.5	49.7	47.3
결혼의향 무, 자녀의향 유	14.6	14.7	14.6	32.9	36.0	34.6
결혼의향 유, 자녀의향 무	8.4	4.6	6.7	48.0	59.9	53.2
결혼의향 유, 자녀의향 유	5.0	3.8	4.3	55.0	62.5	59.6
전체	7.6	4.9	6.1	50.9	59.5	55.6
(사례 수)	(510)	(326)	(835)	(3,396)	(3,986)	(7,381)

주: 1. 가중치 부여 2. 각 집단별 우울 증상=있다(%), 각 집단별 주관적 건강 인식=좋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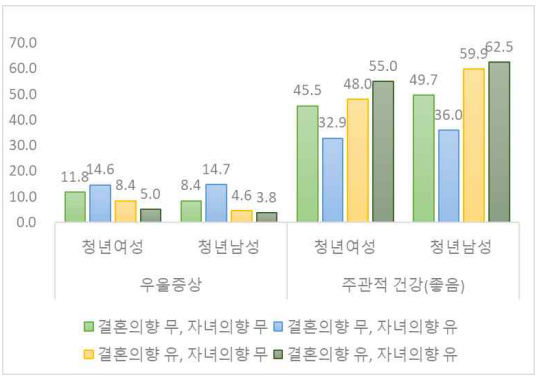
〈표 Ⅱ-13〉 건강상태에 따른 자녀 의향(청년부부, 청년(한)부모)

(단위: %,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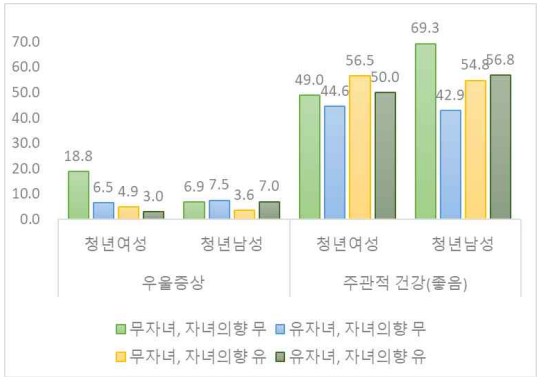
구분	우울 증상			주관적 건강 인식(좋음)		
	청년여성	청년남성	전체	청년여성	청년남성	전체
무자녀, 자녀의향 무	18.8	6.9	12.9	49.0	69.3	59.2
유자녀, 자녀의향 무	6.5	7.5	6.9	44.6	42.9	43.9
무자녀, 자녀의향 유	4.9	3.6	4.2	56.5	54.8	55.6
유자녀, 자녀의향 유	3.0	7.0	4.8	50.0	56.8	53.0
전체	6.7	5.5	6.1	50.5	54.2	52.3
(사례 수)	(40)	(21)	(61)	(305)	(207)	(512)

주: 1. 가중치 부여 2. 각 집단별 우울 증상=있다(%), 각 집단별 주관적 건강 인식=좋음(%)

(단위: %)



가족구성 의향(미(비)혼, 이혼·사별)



자녀 의향(청년부부, 청년(한)부모)

[그림 Ⅱ-3] 건강상태에 따른 가족구성 및 자녀출산 의향

Ⅲ. 삶의 질과 생애전망에 따른 가족구성 의향

1. 청년세대 삶의 질과 성별 가족구성 의향

청년남녀 모두 결혼의향과 자녀의향이 모두 있을 때 자녀계획이 있을 때 대체로 삶의 전반적 만족도가 높고, 자율성을 높게 평가하며, 사회적 신뢰 수준이 높았음. 청년여성은 청년남성보다 현재 자녀가 있거나 자녀를 가질 의향이 있을 때 사회적 신뢰가 뚜렷하게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남.

○ 삶의 전반적 만족도에 따른 청년세대의 집단별 차이를 살펴본 결과, 청년남녀 모두 삶의 만족도가 높을 때 가족구성 의향 및 자녀의향이 나타났음. 청년남성은 자녀가 없고 향후 자녀의향이 없을 때 삶의 만족도가 가장 높게 나타남.

- 청년남녀 배우자가 없을때보다 배우자가 있을 때 삶의 만족도가 더 높았으며, 청년부부가구일때 삶의 만족도가 가장 높고, 독거가구와 부모동거 가구는 비교적 만족도가 낮았음.
- 무배우 청년(미혼(비혼), 이혼·사별)의 가족구성 의향에서, 결혼 및 자녀 의향이 모두 없을 때 청년남성 대비 청년여성의 만족도가 가장 높았으나(여성-남성 0.21점), 결혼 의향만 있을 경우 청년남성의 삶의 만족도가 더 높게 나타났음(여성-남성 -0.2점). 청년남녀 모두 결혼의향과 자녀의향이 모두 있을 때 삶의 만족도가 가장 높은 반면, 결혼의향이 없고, 자녀의향만 있는 경우만족도가 가장 낮았음,
- 청년가구주 청년(청년부부, 청년(한)부모)의 자녀 의향에서, 현재 자녀가 없으나 향후 자녀 계획 중인 청년 여성에게 삶의 만족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음. 반면 청년남성은 현재 자녀가 없고 앞으로도 자녀 계획이 없을 때 가장 높았음. 청년남녀 모두 현재 자녀가 있으나 추가출산 의향이 없을 때 만족도가 가장 낮았음.

〈표 Ⅲ-1〉 삶의 전반적 만족도

(단위: 점)

구분	구분	청년여성	청년남성	전체
연령	19~24세	6.78	6.85	6.82
	25~29세	6.61	6.58	6.60
	30~34세	6.78	6.74	6.76
배우자 여부	배우자 있음	7.12	7.22	7.16
	배우자 없음	6.62	6.64	6.63
가구유형	청년독거가구	6.60	6.66	6.63
	청년부부가구	7.38	7.34	7.36
	청년부부+자녀가구	7.05	7.05	7.05
	부모(가구주)+미혼(비혼)청년가구	6.64	6.66	6.65
	그 외 가구	6.72	6.63	6.68
가족구성 의향 (미(비)혼, 이혼·사별)	결혼의향 무, 자녀의향 무	6.17	5.96	6.08
	결혼의향 무, 자녀의향 유	5.71	5.71	5.71
	결혼의향 유, 자녀의향 무	6.41	6.61	6.50
	결혼의향 유, 자녀의향 유	6.94	6.85	6.88
자녀 의향 (청년부부, 청년(한)부모)	무자녀, 자녀의향 무	7.31	7.40	7.35
	유자녀, 자녀의향 무	6.88	6.82	6.86
	무자녀, 자녀의향 유	7.40	7.32	7.36
	유자녀, 자녀의향 유	7.36	7.38	7.37
전체		6.73	6.72	6.72

주: 1. 가중치 부여 2. 11점 척도: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0 ~ 매우 만족한다=10

○ 삶의 자율성 인식에 따른 청년세대의 집단별 차이를 살펴본 결과, 가족구성 의향에 있어 청년 남녀는 결혼 및 자녀 의향이 모두 있는 집단일때 삶의 자율성을 가장 높게 인식하였음. 자녀 의향 경우 청년남성은 현재 자녀가 없고 자녀의향이 없을 때 자율성이 가장 높은 반면, 여성은 현재 자녀가 없고 자녀의향이 있을 때 자율성이 높아 성별 차이가 있었음.

- 배우자가 있을 때 청년여성은 청년남성보다 더 삶이 자율성을 낮게 인식하였으나, 배우자가 없을 때 성별 차이가 거의 없었음. 가구유형별로는 청년독거가구, 청년부부가구에서 청년여성이 청년남성보다 자율성을 더 높게 인식한 반면, 자녀가 있는 부부가구에서는 청년남성이 청년여성보다 더 자율성을 높게 인식함.
- 가족구성 의향에서 남성 대비 여성의 상대적 차이가 가장 뚜렷한 집단은 결혼의향과 자녀의향이 모두 없을 경우로, 여성이 남성보다 삶의 자율성을 0.32점 더 높게 인식하였음.
- 자녀 의향에서 남녀차이가 가장 뚜렷한 집단은 현재 자녀가 없고 향후 자녀의향이 없는 집단(딩크족)으로, 남성이 여성보다 0.3점 더 높았음. 반대로, 현재 자녀가 없으나 향후 자녀의향이 있는 집단에서는 여성이 남성보다 0.24점 더 높아 반대의 결과가 나타났음.

〈표 Ⅲ-2〉 삶의 자율성

(단위: 점)

구분	구분	청년여성	청년남성	전체
연령	19~24세	7.07	7.12	7.10
	25~29세	6.82	6.89	6.86
	30~34세	6.80	6.82	6.81
배우자 여부	배우자 있음	6.79	7.00	6.88
	배우자 없음	6.93	6.94	6.94
가구유형	청년독거가구	6.98	6.88	6.92
	청년부부가구	7.34	7.22	7.28
	청년부부+자녀가구	6.48	6.63	6.54
	부모(가구주)+미혼(비혼)청년가구	6.95	6.99	6.97
	그 외 가구	6.63	6.77	6.68
가족구성 의향 (미(비)혼, 이혼·사별)	결혼의향 무, 자녀의향 무	6.61	6.29	6.47
	결혼의향 무, 자녀의향 유	6.56	6.40	6.47
	결혼의향 유, 자녀의향 무	6.80	6.83	6.81
	결혼의향 유, 자녀의향 유	7.16	7.14	7.14
자녀 의향 (청년부부, 청년(한)부모)	무자녀, 자녀의향 무	6.95	7.25	7.10
	유자녀, 자녀의향 무	6.17	6.34	6.24
	무자녀, 자녀의향 유	7.46	7.22	7.33
	유자녀, 자녀의향 유	7.04	7.03	7.04
전체		6.90	6.95	6.93

주: 1. 가중치 부여 2. 11점 척도: 전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없다=0 ~ 매우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10

○ 사회적 신뢰 인식에 따른 청년세대의 집단별 차이를 살펴본 결과, 청년층은 남녀에 관계 없이 결혼 및 자녀의향이 모두 있을 경우와 자녀의향이 있을 때 사회적 신뢰가 높았음.

- 배우자가 있는 경우 청년여성의 사회적 신뢰도가 더 높으며,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는 청년남성이 청년여성보다 약간 더 높은 신뢰를 보임. 특히 부부가구와 자녀를 둔 부부가구에서 청년여성의 신뢰가 청년남성보다 훨씬 높게 나타남. 이는 여성이 주로 담당하는 육아·가족돌봄의 특성상 주변과의 호혜적 관계와 사회적 지원을 주고받으며 나타난 결과로 보임.
- 한편, 청년가구주의 남성은 현재 자녀가 없고 향후 자녀의향이 없을 경우에도 사회적 신뢰가 높았음. 반면, 청년여성은 현재 자녀가 있거나 향후 자녀계획이 있는 등 자녀와 관련 있는 경우에만 뚜렷하게 높았음.
- 출산 등 가족구성 의향은 대체로 사회적 신뢰와 긍정적 관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있음. 특히 청년가구주의 청년여성들은 자녀 또는 추가 자녀 의향이 있는 집단에서 가장 높은 신뢰가 나타났는데, 이는 여성들이 출산의 전제조건으로 사회에 대한 믿음과 낙관적 평가를 중요하게 인식함을 시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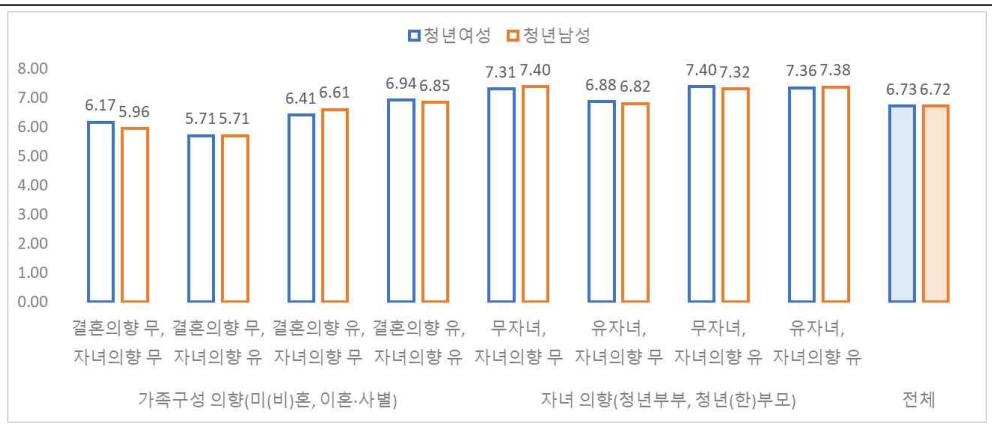
〈표 Ⅲ-3〉 사회적 신뢰도

(단위: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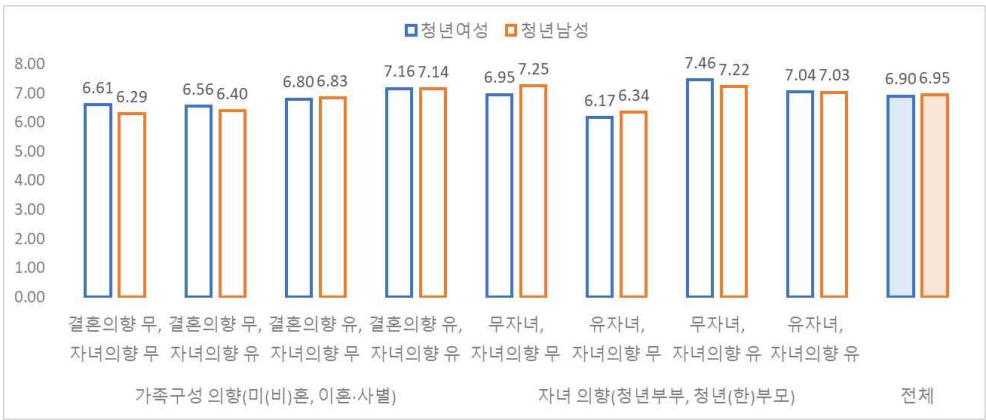
구분	구분	청년여성	청년남성	전체
연령	19~24세	5.32	5.39	5.36
	25~29세	5.06	5.22	5.15
	30~34세	5.16	5.01	5.08
배우자 여부	배우자 있음	5.27	5.21	5.25
	배우자 없음	5.16	5.22	5.19
가구유형	청년독거가구	5.07	5.22	5.15
	청년부부가구	5.37	5.30	5.33
	청년부부+자녀가구	5.31	4.93	5.15
	부모(가구주)+미혼(비혼)청년가구	5.22	5.23	5.23
	그 외 가구	5.07	5.16	5.10
가족구성 의향 (미(비)혼, 이혼·사별)	결혼의향 무, 자녀의향 무	4.73	4.64	4.69
	결혼의향 무, 자녀의향 유	5.36	4.32	4.79
	결혼의향 유, 자녀의향 무	4.95	4.99	4.97
	결혼의향 유, 자녀의향 유	5.44	5.42	5.43
자녀 의향 (청년부부, 청년(한)부모)	무자녀, 자녀의향 무	4.65	5.26	4.95
	유자녀, 자녀의향 무	5.11	4.42	4.84
	무자녀, 자녀의향 유	5.59	5.31	5.44
	유자녀, 자녀의향 유	5.66	5.65	5.66
전체		5.18	5.22	5.20

주: 1. 가중치 부여 2. 11점 척도: 전혀 신뢰할 수 없다=0 ~ 매우 신뢰할 수 있다=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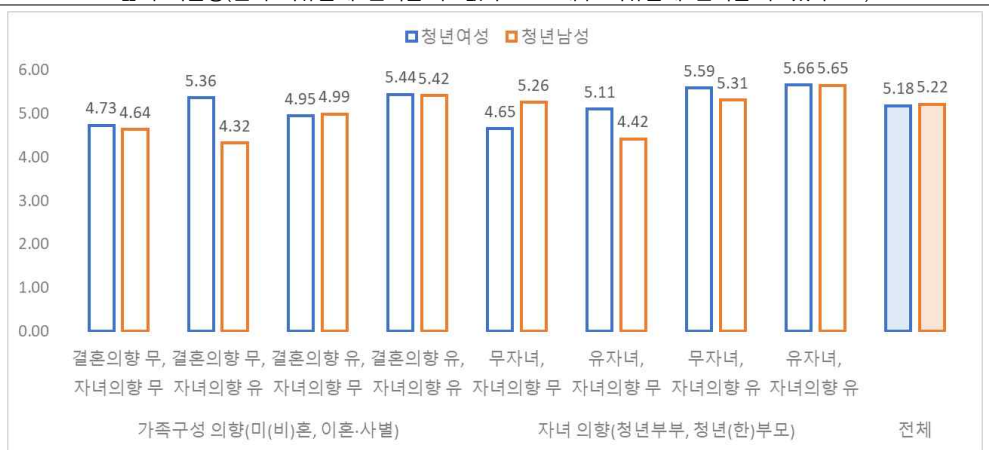
(단위: 점)



삶의 전반적 만족도(전혀 만족하지 않는다=0 ~ 매우 만족한다=10)



삶의 자율성(전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없다=0 ~ 매우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10)



사회적 신뢰도(전혀 신뢰할 수 없다=0 ~ 매우 신뢰할 수 있다=10)

[그림 Ⅲ-1] 가족구성 및 자녀출산 의향

2. 청년세대 생애전망과 성별 가족구성 의향

청년남성은 결혼과 자녀출산을 삶의 중요한 부분으로 인식하는 반면, 청년여성은 가족구성에 대한 중요도는 낮은 대신, 학력, 일자리, 소득 등에서 남성과 동등한 수준으로 중요하게 평가하였음.

○ 청년여성과 청년남성이 삶의 중요도 인식을 결혼, 자녀출산, 높은 학력, 높은 소득 등 각 부문별로 성별 차이를 살펴보았음. 청년남성은 청년여성보다 연애, 결혼과 같은 파트너십을 비롯하여 자녀출산 및 양육 등의 가족구성과 관련된 영역을 삶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더 높았음. 반면, 높은 학력 수준과 내가 원하는 일자리, 높은 소득과 자산 등 사회경제적 성취에 대한 지향은 남녀 모두 유사한 수준으로 중요도가 높게 나타났음. 동 결과는 김은지 외(2019) 등 선행연구에서 밝혔듯 청년층을 중심으로 한 노동중심적 생애의 보편화 속에 가족구성에 대한 기대와 실천, 그 요건에 있어, 비혼(미혼) 청년층 내 성별 차이의 심화를 보여줌.

- '배우자 여부'에서는 배우자가 있는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남녀 모두 연애, 결혼, 자녀출산 및 양육에 대한 중요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가운데, 높은 학력(무배우 집단에서 더 높음), 소득/자산(유배우 집단에서 더 높음) 등의 영역을 제외한 나머지 영역은 배우자 유무에 따른 차이가 거의 없었음.
- '가구유형'에서는 '청년부부가구' 및 '자녀가 있는 청년부부가구'에서 결혼 및 자녀출산에 대한 가장 높은 중요도를 나타냈고, 청년부부가구의 여성은 특히 사회적 기여에 대한 욕구가 눈에 띄게 높게 나타났음.
- '가족구성 의향(미(비)혼, 이혼·사별)'에서는 청년남녀 모두 결혼 및 자녀의향 여부에 따라 연애, 결혼, 자녀 출산과 양육에 대한 결과가 크게 달라졌음, 그러나 높은 학력수준, 내가 원하는 일자리, 높은 소득과 많은 자산, 좋은 사람들과의 관계 등의 사회경제적 지위 성취와 관련된 요건에서는 청년여성의 경우 가족구성의 욕구 유형과 무관하게 대체로 유사하게 높은 값을 보인 반면, 청년남성은 가족구성 유형별로 좀 더 차이가 나타났으며 특히 결혼 및 자녀출산의 의향이 모두 있는 집단에서 지위성취 내지 자기실현에 대한 욕구가 가장 높게 나타났음.
- '자녀의향(청년부부, 청년(한)부모)'에서는 첫 자녀나 추가출산 의향 등 자녀계획이 있는 경우 청년층 남녀 모두 연애, 결혼, 자녀출산과 양육 등 가족구성 요건을 중요한 삶의 요소로 인식하였음. 특히 자녀가 있고, 추가자녀의 의향이 있는 집단에서 청년여성에게는 '높은 소득과 많은 자산'과 '좋은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한 중요도는 평균 99점 이상의 거의 100점에 가까운 점수가 나타났음, 한편, 자녀가 없고 앞으로도 자녀계획이 없는 집단에서, 청년여성은 상대적으로 '높은 소득과 많은 자산', '명예와 권력'에 대한 중요도가 가장 낮게 평가되었고, 반대로 청년남성은 동 집단에서 '내가 원하는 일자리'와 '명예와 권력'에 대한 뚜렷한 지향이 나타났음.
- 종합하면, 청년가구주 중 현재 자녀가 없고 앞으로도 자녀계획이 없는 등 자녀와 무관한 혼인생활(딩크족)을 영위하는 청년여성들은 상대적으로 사회경제적 지위 성취에 대한 욕구가 낮았으나, 반대로 청년남성들은 동 집단을 중심으로 지위성취의 열망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등 성별로 차이가 나타났음. 앞선 자녀의향에 따른 사회경제적 현황의 결과를 살펴보면, 동 집단의 청년여성들은 사회경제적 지위(학력수준, 경제활동 여부, 개인소득 등)가 양호한 편인 반면, 반대로 청년남성들은 열악한 상황으로 나타났음. 따라서 사회경제적 지위성취의 중요도에 대한 높은 평가는 현재 충족되지 못하였으나 자기실현을 위한 중요조건으로서 그 열망을 표현하는 상반된 결과로 해석이 필요함.

〈표 Ⅲ-4〉 청년여성: 삶의 중요도 인식

(단위: 점)

구분	구분	연애	결혼	자녀 출산과 양육	높은 학력 수준	내가 원하는 일자리	높은 소득과 많은 자산	좋은 사람들과의 관계	사회 기여	명예와 권력
연령	19~24세	73.4	62.9	54.9	66.1	98.0	93.5	96.1	73.2	60.1
	25~29세	78.0	69.6	64.5	61.1	97.0	93.6	97.2	71.9	59.1
	30~34세	83.7	76.0	74.7	61.7	96.8	94.5	95.6	75.4	59.5
배우자 여부	배우자 있음	90.8	88.6	86.4	59.8	97.0	95.0	97.2	74.8	60.6
	배우자 없음	74.6	63.8	58.1	63.9	97.4	93.6	96.1	73.0	59.3
가구유형	청년독거가구	77.0	65.9	60.8	64.7	97.3	93.9	96.5	73.8	60.5
	청년부부가구	94.2	89.8	82.7	55.9	96.7	95.1	98.2	77.9	60.7
	청년부부+자녀가구	88.7	88.3	90.6	63.4	97.7	96.8	97.5	70.9	60.6
	부모(가구주)+미혼(비혼)청년가구	74.3	63.3	56.8	63.8	97.4	93.6	96.3	73.2	60.0
	그 외 가구	79.9	74.5	72.7	61.2	96.9	92.3	94.5	72.5	55.5
가족구성 의향 (미(비)혼, 이혼·사별)	결혼의향 무, 자녀의향 무	45.3	21.6	21.4	58.0	96.2	91.8	94.8	69.9	54.5
	결혼의향 무, 자녀의향 유	56.0	38.5	60.3	60.5	97.6	93.1	94.8	84.8	54.7
	결혼의향 유, 자녀의향 무	82.1	68.8	38.7	63.9	97.3	95.0	94.8	66.9	56.9
	결혼의향 유, 자녀의향 유	88.8	85.8	83.0	67.1	98.1	94.0	97.1	75.9	62.6
자녀 의향 (청년부부, 청년(한)부모)	무자녀, 자녀의향 무	90.8	77.4	54.9	46.1	95.8	87.6	96.1	67.5	44.0
	유자녀, 자녀의향 무	88.6	86.7	87.7	63.5	97.5	95.4	96.4	69.1	61.1
	무자녀, 자녀의향 유	95.3	93.6	91.3	58.9	96.9	97.4	98.8	81.2	65.9
	유자녀, 자녀의향 유	88.8	91.3	95.9	63.4	98.1	99.3	99.5	74.2	59.7
전체		78.1	69.2	64.3	63.0	97.3	93.9	96.3	73.4	59.6

주: 1. 가중치 부여 2. 각 집단별 중요하다(%)=중요하다+중요하지 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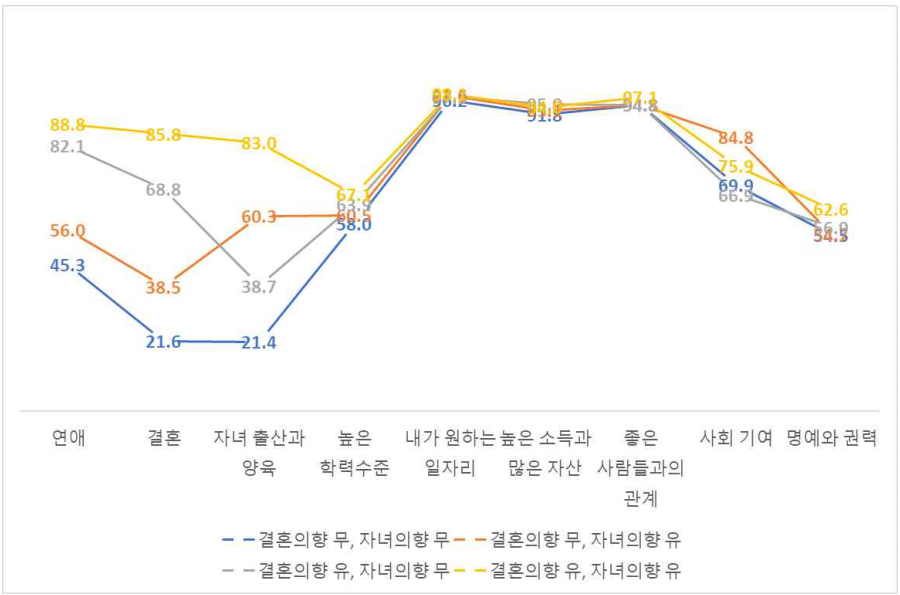
〈표 Ⅲ-5〉 청년남성: 삶의 중요도 인식

(단위: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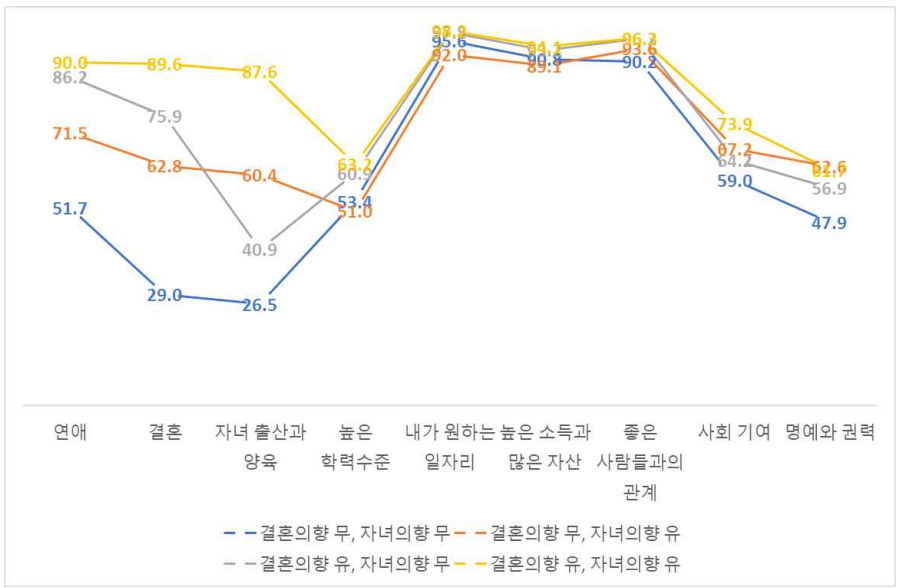
구분	구분	연애	결혼	자녀 출산과 양육	높은 학력 수준	내가 원하는 일자리	높은 소득과 많은 자산	좋은 사람들과의 관계	사회 기여	명예와 권력
연령	19~24세	81.3	77.3	71.4	66.2	98.0	93.9	95.4	71.2	62.0
	25~29세	83.6	78.6	72.7	56.0	96.9	92.4	95.2	69.3	54.6
	30~34세	85.7	80.8	77.5	59.1	97.3	94.9	94.6	70.8	59.7
배우자 여부	배우자 있음	91.4	93.4	88.8	57.9	96.6	96.3	95.2	72.6	59.3
	배우자 없음	82.1	76.5	71.3	61.0	97.6	93.3	95.1	70.0	58.7
가구유형	청년독거가구	84.5	78.7	74.0	62.2	96.9	93.5	94.1	69.4	58.3
	청년부부가구	91.4	95.1	85.1	59.0	96.3	96.5	93.7	73.9	58.9
	청년부부+자녀가구	92.1	90.3	94.5	57.5	96.6	97.2	97.7	71.3	62.6
	부모(가구주)+미혼(비혼)청년가구	81.4	76.1	70.9	60.8	97.9	93.1	95.4	70.6	58.8
	그 외 가구	81.7	76.3	69.8	56.4	97.4	94.2	95.8	68.0	57.3
가족구성 의향 (미(비)혼, 이혼·사별)	결혼의향 무, 자녀의향 무	51.7	29.0	26.5	53.4	95.6	90.8	90.2	59.0	47.9
	결혼의향 무, 자녀의향 유	71.5	62.8	60.4	51.0	92.0	89.1	93.6	67.2	62.6
	결혼의향 유, 자녀의향 무	86.2	75.9	40.9	60.9	97.8	93.2	96.2	64.2	56.9
	결혼의향 유, 자녀의향 유	90.0	89.6	87.6	63.2	98.2	94.1	96.3	73.9	61.7
자녀 의향 (청년부부, 청년(한)부모)	무자녀, 자녀의향 무	89.1	90.7	51.9	54.6	98.9	90.7	93.9	67.0	75.7
	유자녀, 자녀의향 무	91.8	88.5	93.2	53.8	96.5	96.1	97.4	64.4	59.7
	무자녀, 자녀의향 유	92.0	96.2	93.8	60.2	95.6	98.0	93.6	75.7	54.5
	유자녀, 자녀의향 유	92.6	92.9	96.3	62.8	96.7	98.7	98.2	81.1	66.6
전체		83.4	78.8	73.7	60.5	97.4	93.7	95.1	70.4	58.8

주: 1. 가중치 부여 2. 각 집단별 중요하다(%)=중요하다+중요하지 않다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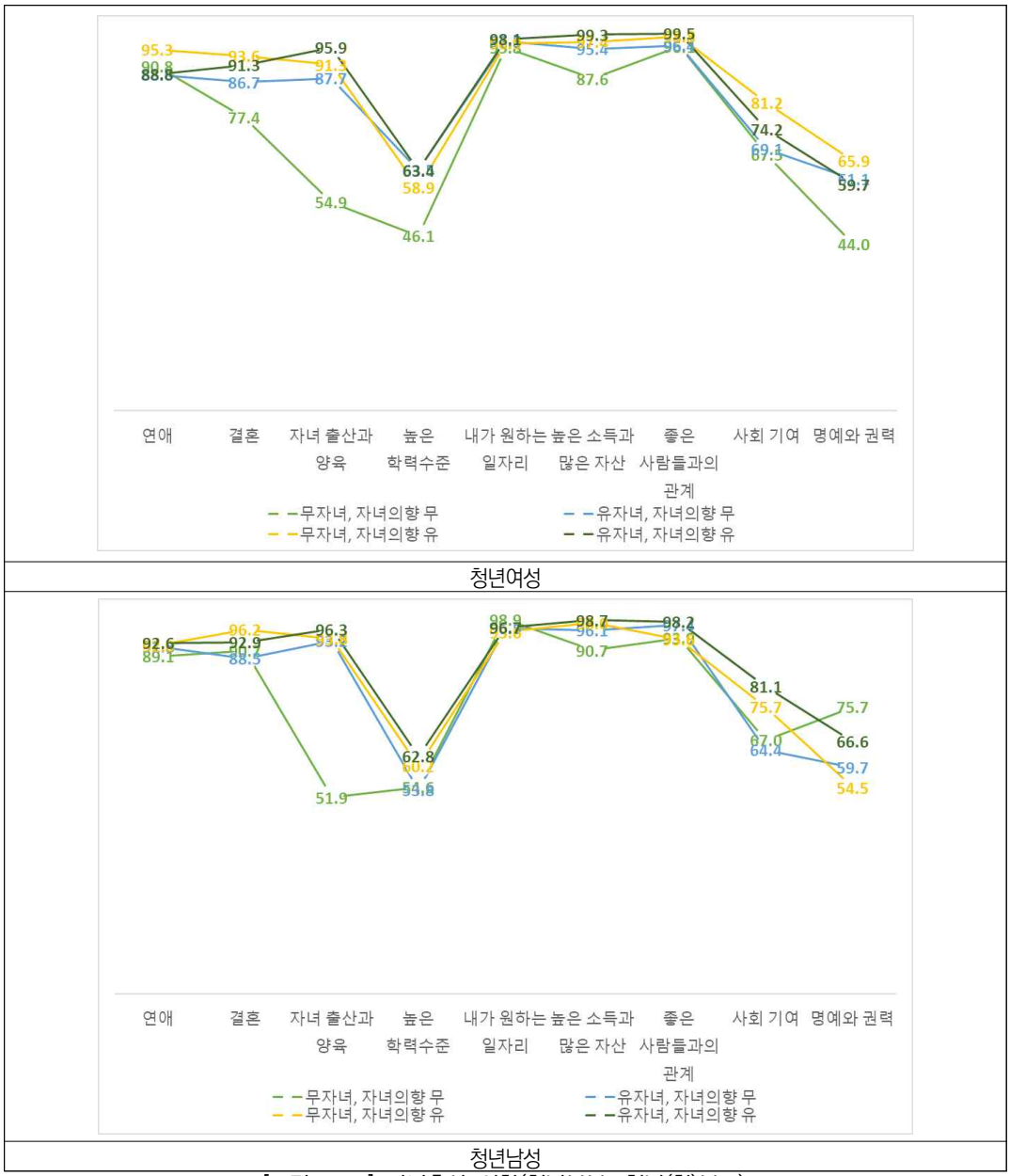
청년여성



청년남성

[그림 Ⅲ-2] 가족구성 의향(미(비)혼, 이혼·사별)

(단위: %)



[그림 Ⅲ-3] 자녀출산 의향(청년부부, 청년(한)부모)

미래실현 가능성에 대한 부정적 전망은 대체로 가족구성 의향의 부재와 관련이 높았으며, 이는 무배우 청년남성에게 가장 뚜렷하였음. 반면 청년여성은 딩크족(무자녀 및 자녀의향 없음) 부부일 경우 미래실현 가능성을 낙관적 혹은 비관적으로 평가하는 집단 사이에 양극화되어 있었음.

○ 청년세대의 자신의 삶에서 바라는 미래실현의 가능성에 대한 인식을 성별로 살펴보았음. 분석 결과, 청년남성은 전반적으로 미래실현 가능성을 청년여성보다 더 긍정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으나, 결혼 및 자녀 의향이 없을 경우 그 기대가 낮아짐. 청년여성은 자녀가 없고 향후에도 자녀를 가질 의향이 없는 집단(딩크족) 가운데 미래실현 가능성에 대한 평가가 양극화되었음.

- 청년남녀 모두 배우자가 있는 집단이 없는 집단보다 더 미래실현 가능성을 낙관적으로 평가하였음.
- 가족구성 의향에 있어, 청년여성은 결혼 의향이 없으나 자녀 의향이 있을 때 미래실현 가능성에 대한 가장 높은 기대가 나타났음. 청년남성은 특히 결혼의향이 없는 집단을 중심으로 미래실현 가능성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비율이 여성보다 보다 뚜렷하게 높았음.
- 자녀 의향의 경우, 청년여성은 현재 자녀가 없고 향후에도 자녀의향이 없을때 미래실현 가능성에 대해 '전혀 실현할 수 없다(10.8%)'와 '완벽하게 실현할 수 있다(16.8%)'의 상반된 결과값이 모두 높게 나타나면서 소위 딩크족을 지향하는 여성은 삶의 기회실현 가능성에 대한 낙관성과 비관적 태도 사이의 이질적 집단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시사하였음, 반대로 동 집단에서 청년남성은 '전혀 실현할 수 없다'가 1.6%, '완벽하게 실현할 수 있다'가 17.4%로 삶에 대한 낙관적 인식이 더 뚜렷하였음.
- 이와 같은 결과를 종합하면, 대체로 가족구성 의향이 있는 무배우 청년층은 미래실현에 대한 낙관적 전망과 관련이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청년남성의 경우에서 더 뚜렷하였음. 자녀 의향에서 딩크족 부부의 청년여성은 미래전망에 대한 양극화된 평가를 갖고 있는 이질적 집단으로 구성된 반면, 청년남성은 이보다 낙관적 전망을 지지하는 경향이 현저하게 높게 나타나 동질적 집단으로 구성되어 있는 등 성별로 차이가 있었음.

〈표 Ⅲ-6〉 미래실현 가능성

(단위: 점)

구분	구분	청년여성			청년남성		
		전혀 실현할 수 없다	어느 정도 실현할 수 있지만 완벽히 실현할 수 없다	완벽하게 실현할 수 있다	전혀 실현할 수 없다	어느 정도 실현할 수 있지만 완벽히 실현할 수 없다	완벽하게 실현할 수 있다
연령	19~24세	3.7	88.3	8.0	4.5	87.5	8.0
	25~29세	5.0	89.0	6.0	5.4	87.4	7.2
	30~34세	6.1	87.1	6.8	6.9	86.0	7.1
배우자 여부	배우자 있음	4.5	86.5	9.0	4.4	86.6	9.0
	배우자 없음	5.0	88.6	6.4	5.7	87.1	7.2
가구유형	청년독거가구	5.1	88.8	6.1	6.7	86.0	7.3
	청년부부가구	4.2	86.3	9.5	3.8	86.7	9.5
	청년부부+자녀가구	4.5	87.4	8.1	4.8	86.7	8.5
	부모(가구주)+미혼(비혼)청년가구	4.5	89.2	6.3	5.3	87.3	7.4
	그 외 가구	6.5	84.7	8.8	5.6	88.5	5.9
가족구성 의향 (미(비)혼, 이혼·사별)	결혼의향 무, 자녀의향 무	7.6	85.7	6.7	13.2	80.8	6.1
	결혼의향 무, 자녀의향 유	7.6	76.3	16.1	13.9	81.5	4.7
	결혼의향 유, 자녀의향 무	5.0	90.0	5.0	5.2	87.4	7.4
	결혼의향 유, 자녀의향 유	3.5	90.1	6.4	3.6	88.8	7.5
자녀 의향 (청년부부, 청년(한)부모)	무자녀, 자녀의향 무	10.8	72.4	16.8	1.6	81.0	17.4
	유자녀, 자녀의향 무	6.1	86.5	7.4	6.7	84.0	9.3
	무자녀, 자녀의향 유	2.2	90.6	7.2	4.4	88.2	7.4
	유자녀, 자녀의향 유	1.6	89.1	9.3	2.1	90.5	7.4
전체		4.9	88.2	7.0	5.5	87.0	7.5

주: 가중치 부여

3. 청년세대의 사회갈등 인식과 성별 가족구성 의향

청년여성은 청년남성보다 사회갈등을 전반적으로 더 높게 인식하며, 특히 남성과 여성 간 성별 갈등이 높을수록 자녀출산 의향이 낮아지는 연관성이 두드러졌음.

○ 청년세대의 사회갈등 인식을 살펴본 결과, 청년여성은 대부분 항목에서 청년남성보다 사회갈등 수준을 높게 인식하는 가운데, “결혼의향과 자녀의향이 모두 없는 여성”과 “결혼의향이 있으나 자녀출산 의향이 없는 여성”, “현재 자녀가 없고 앞으로도 자녀의향이 없는 여성”을 중심으로 성별 갈등 인식이 가장 높게 나타나, 여성의 높은 성별갈등 인식은 낮은 자녀출산 의향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음.

- 배우자가 없는 경우 청년여성은 남성과 여성 간 갈등을 더 크게 인식(청년여성 75.6%, 청년남성 70.4%)하였으나, 청년남성은 전반적으로 배우자 유무와 관계없이 비슷한 수준을 보임.
- 청년여성은 부모(가구주) 및 미(비)혼청년가구에서 가장 높은 성별 갈등 인식을 나타냈으며, 청년남성은 청년부부+자녀가구에서 가장 높은 성별갈등 인식을 보임.
- 가족구성 의향에서, 결혼 및 자녀 의향이 모두 없거나 결혼의향은 있으되 자녀의향이 없는 청년여성은 성별 갈등을 높게 인식하면서 여성의 출산의향과 성별갈등 인식은 관련이 있었음.
- 자녀 의향 또한 마찬가지로 자녀출산 의향이 없는 청년여성들의 성별 갈등 인식이 다른 여성들보다 가장 높게 나타났음. 반면 청년남성은 자녀가 있는 집단에서 성별 갈등을 더 높게 인지하고 있었음.
- 여성은 대체로 가족구성 의향이 있거나 자녀의향이 있을 때 갈등인식은 낮아지는 경향이 있었음.

〈표 Ⅲ-7〉 청년여성: 사회집단 갈등 인식

(단위: %)

구분	구분	기성세대와 젊은세대	부유층과 서민층	수도권과 비수도권	남성과 여성	내국인과 외국인
연령	19~24세	75.9	79.7	62.3	75.8	52.6
	25~29세	77.2	82.0	66.4	74.0	55.9
	30~34세	78.6	83.3	68.3	72.8	56.9
배우자 여부	배우자 있음	77.2	80.6	67.4	69.7	54.4
	배우자 없음	77.2	81.8	65.0	75.6	55.2
가구유형	청년독거가구	76.8	80.3	64.7	72.3	56.0
	청년부부가구	82.4	85.5	67.8	67.0	53.2
	청년부부+자녀가구	73.8	76.9	66.5	71.9	55.5
	부모(가구주)+미(비)혼청년가구	77.8	82.2	65.5	77.0	54.9
	그 외 가구	74.8	81.7	65.3	72.2	54.8
가족구성 의향 (미(비)혼, 이혼·사별)	결혼의향 무, 자녀의향 무	79.6	85.3	71.8	80.7	59.0
	결혼의향 무, 자녀의향 유	64.9	72.3	71.9	69.9	51.4
	결혼의향 유, 자녀의향 무	82.8	85.4	65.4	80.6	61.2
	결혼의향 유, 자녀의향 유	74.7	79.2	61.1	71.6	51.8
자녀 의향 (청년부부, 청년(한)부모)	무자녀, 자녀의향 무	89.5	89.9	71.5	77.9	56.1
	유자녀, 자녀의향 무	73.5	78.1	70.2	73.3	58.1
	무자녀, 자녀의향 유	80.1	84.2	66.6	63.7	52.3
	유자녀, 자녀의향 유	74.4	74.6	59.9	69.4	50.8
전체		77.2	81.6	65.6	74.3	55.1

주: 1. 가중치 부여 2. 각 집단별 갈등이 매우 많다+갈등이 많은 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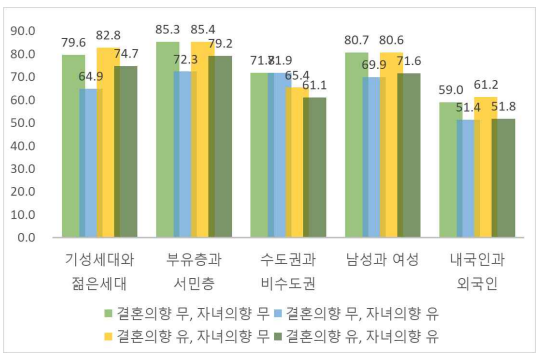
〈표 Ⅲ-8〉 청년남성: 사회집단 갈등 인식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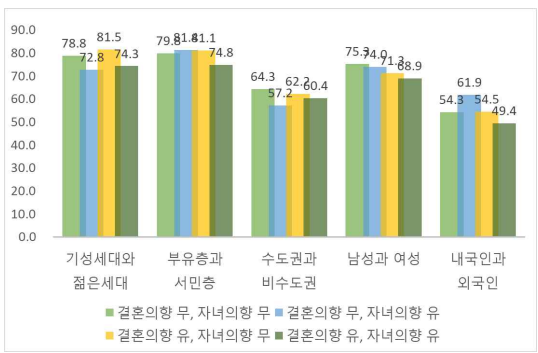
구분	구분	기성세대와 젊은세대	부유층과 서민층	수도권과 비수도권	남성과 여성	내국인과 외국인
연령	19~24세	75.5	74.4	59.8	70.7	48.7
	25~29세	75.4	78.2	61.1	71.1	50.7
	30~34세	77.2	78.6	63.7	69.4	54.6
배우자 여부	배우자 있음	77.1	80.4	62.4	70.6	52.1
	배우자 없음	75.8	76.5	61.3	70.4	51.0
가구유형	청년독거가구	73.6	75.2	59.7	67.4	50.6
	청년부부가구	74.2	77.9	61.6	66.9	51.3
	청년부부+자녀가구	83.2	84.0	62.7	77.6	52.0
	부모(가구주)+미(비)혼청년가구	76.7	77.1	61.8	71.9	51.4
	그 외 가구	75.2	77.2	63.9	69.2	50.4
가족구성 의향 (미(비)혼, 이혼·사별)	결혼의향 무, 자녀의향 무	78.8	79.8	64.3	75.3	54.3
	결혼의향 무, 자녀의향 유	72.8	81.4	57.2	74.0	61.9
	결혼의향 유, 자녀의향 무	81.5	81.1	62.2	71.3	54.5
	결혼의향 유, 자녀의향 유	74.3	74.8	60.4	68.9	49.4
자녀 의향 (청년부부, 청년(한)부모)	무자녀, 자녀의향 무	71.9	71.5	49.6	58.9	49.1
	유자녀, 자녀의향 무	89.7	90.1	68.6	81.1	50.6
	무자녀, 자녀의향 유	74.9	79.6	64.7	69.0	51.8
	유자녀, 자녀의향 유	73.9	75.3	54.4	72.7	54.0
전체		76.0	77.0	61.4	70.5	51.2

주: 1. 가중치 부여 2. 각 집단별 갈등이 매우 많다+갈등이 많은 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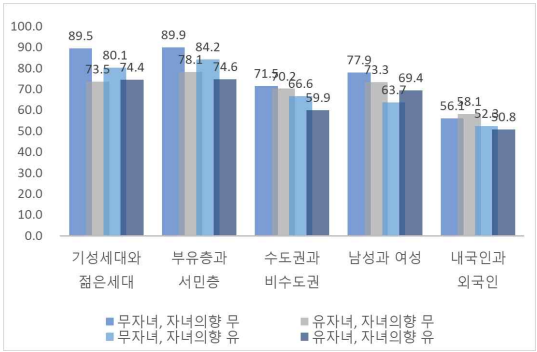
(단위: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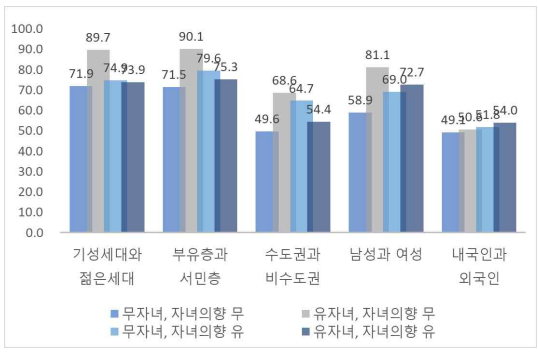
청년여성(미(비)혼, 이혼·사별): 가족구성 의향



청년남성(미(비)혼, 이혼·사별): 가족구성 의향



청년여성(청년부부, 청년(한)부모): 자녀출산 의향



청년남성(청년부부, 청년(한)부모): 자녀출산 의향

[그림 Ⅲ-4] 자녀출산 의향(배우자 있음, 청년가구주)

Ⅳ. 요약 및 시사점

청년여성은 청년남성과 달리 결혼과 자녀출산 등 가족구성 의향 및 삶의 중요도가 낮은 반면, 사회경제적 안정과 자기실현의 가능성을 중시하는 경향이 나타남. 저출생 대응 정책의 설계에 있어 여성과 남성의 수요에 대한 균형있는 고려가 필요함과 동시에, 성평등한 가족구성에 기반한 일과 가족의 생애전망을 기획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함.

○ 청년여성은 결혼과 자녀출산에 대한 가족구성 의향이 전반적으로 청년남성보다 낮게 나타났으며, 특히 청년여성은 일자리 안정성을 가족구성 의향과 관련이 높았음. 반면, 청년남성은 여성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경제활동 상태와 무관하게 결혼과 자녀출산을 삶의 중요한 요소로 인식하는 편이었고, 가족구성에 긍정적인 태도를 지속적으로 보였음.

- 대졸 이상의 학력을 가진 청년층은 결혼과 자녀계획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으며, 학력이 높을수록 가족구성 의향이 강화되는 경향이 있었음. 청년여성은 실업 상태에서 가족구성 의향이 보다 뚜렷화게 약화되었는데, 이는 여성에게 경제적 안정이 결혼과 출산의 중요한 선행 조건임을 시사함.
- 청년층은 배우자가 없을 경우 결혼 의향 및 자녀의향이 모두 있을 때 남녀에 관계없이 삶의 만족도와 자율성을 높게 평가하였음. 한편, 청년가구주의 부부/부모일 경우 청년여성은 현재 자녀 유무와 관계없이 (추가) 자녀의향이 있을 때 삶의 만족도와 자율성을 가장 높게 평가하였음. 청년남성은 현재 자녀가 없고 향후 자녀 의향이 없을 때 삶의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삶의 자율성도 가장 높게 인식하는 경향을 보였음. 이는 삶의 질 증가는 곧 가족구성 의향과 긍정적 관계가 성립된다는 것을 의미하며, 특히 기혼·부모 청년가구의 여성에게는 (추가)출산의향이 곧 삶에 대한 긍적적 평가와 연결된다는 점을 시사함.
- 배우자가 있는 청년여성은 사회적 신뢰가 높았으나, 배우자가 없는 경우 청년남성의 신뢰가 더 높게 나타났음. 특히, 청년여성은 가족돌봄 역할과 관련된 사회적 지원과 신뢰에서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청년남성은 자녀계획이 없는 경우 신뢰가 높아지는 경향이 확인됨.
- 청년여성은 배우자가 있을때 사회적 신뢰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결혼 및 자녀 의향이 모두 있거나, (추가)자녀를 계획 중일 때 가장 높게 나타났음. 반면, 청년남성은 배우자가 없을 때 사회적 신뢰도가 더 높았고, 자녀의향이 없는 경우에도 신뢰가 비교적 높은 편이어서 가족구성 의향과 신뢰 간의 긍정적 관계가 성립되는 여성과 차이가 있었음. 이는 청년남성의 사회적 자본은 가족영역과 큰 관련이 없지만, 여성은 자녀 및 가족돌봄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자본을 형성하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음. 역으로 청년여성은 사회에 대한 신뢰 및 안정성이 증가할 때 출산 의향이 높아진다는 점을 의미함.
- 삶의 중요도 인식에서도 성별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났음. 청년남성은 청년여성보다 연애, 결혼과 자녀출산 및 육아 등의 가족구성과 관련된 영역을 삶에서 좀 더 중요한 요소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났음, 반면, 청년여성은 학력, 일자리, 소득과 같은 개인적 성취와 안정성을 남성보다 더 높거나 남성과 거의 동등한 수준으로 중요하게 평가하면서, 청년층은 성별과 무관하게 노동중심적 생애에 대한 보편화와 함께 자기실현 욕구가 성평등하게 자리잡고 있음을 시사하였음. 특히 청년여성은 가족구성 여부와 관계없이 사회적 지위와 자산 형성을 삶의 주요 목표로 인식하였는데, 이는 여성에게 있어 가족구성이 삶의 자기실현을 위한 핵심요건이 아니며 탈가족중심적·탈젠더화된 생애의 지향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시사함.
- 사회갈등 인식에서는 청년여성이 대부분의 항목에서 청년남성보다 더 높은 갈등 수준을 인식하였음. 남성과 여성 간의 성별 갈등에 대한 인식은 특히 자녀출산 의향 유형에 따라 흥미로운 결과가 나타났는데, 자녀출산 의향이 없는 청년여성들은 남성보다 성별 갈등을 더 높게 인식하고 있었음. 리응 청년여성의 낮은

자녀출산 의향은 곧 성별 갈등 인식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보여주며, 우리 사회가 보다 성평등한 목표와 가치들에 대한 비전들을 제시할 때 청년 및 청년여성들의 자녀출산에 대한 긍정적 평가를 높이고 저출생 문제를 극복할 수 있음을 시사하였음.

- 종합하면, 청년세대의 가족구성 의향과 자녀 의향은 성별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났으며, 청년여성들은 출산의 전제조건으로 보다 성평등한 생애전망과 자기실현을 중요시하는 경향으로 나아가고 있었음. 청년남성 또한 유사한 경향이 나타났으나, 상대적으로 여성보다 결혼과 자녀출산 등 가족구성 의향이 전반적으로 높았고, 가족구성을 삶의 중요목표로 인식하는 경향이 두드러졌으며, 동 경향은 집단간 차이에 덜 구애받는 모습이 나타났음. 가족구성 의향이 여성의 경우 사회적 구조와의 관계 속에서 생애전망 상의 차별적 여건을 해소하기 위한 선택과정에서 나타난 반면, 남성에게는 전통적 생애 경로의 연장선으로서 고려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음.

○ 이와 같은 결과는 현재 혼인·혈연에 기반한 정상가족 중심의 가족지원모델과 출산력 제고 중심의 인구조절 정책에 대한 근본적 성찰이 요구됨. 청년여성의 출산 의향을 높이기 위해서는 일자리에서의 기회실현 제약과 같은 사회적 성별갈등 요인의 해소를 필요로 하며, 이는 궁극적으로 청년남녀 모두의 재생산 욕구를 실현하기 위한 방향으로 볼 수 있음. 또한 기혼가구뿐만 아니라 다양한 가족의 출산 의향을 지지하고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함.

-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청년세대, 특히 청년여성은 결혼과 출산 의향이 낮았으며, 삶에서 가족구성에 대한 중요도를 남성보다 낮게 인식하고 있었음. 반면 일자리 등의 사회경제적 성취에 대한 중요도는 남녀 모두 높은 수준으로 중요하게 견지하고 있음. 이는 청년여성들이 가족구성 중심 생애과업의 선택에 대한 낮은 지향과 회피의 메시지, 그리고 일과 가족의 성평등한 역할에 대한 열망을 나타내는 결과로 볼 수 있음.
- 청년층은 결혼, 출산에 기반한 가족구성을 자신의 청년기 생애과업으로서 당위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가족구성 방법에 대한 다양성 역시 추구하고 있음, 청년, 여성이 겪는 생애전망상 차별적 여건의 개선 없이 결혼 및 출산장려와 같은 가족구성에 대한 당위성과 도구화된 목표를 강조하는 것은 자기결정에 근간한 가족구성의 선택을 제약함과 동시에 정책당사자를 소외시키는 결과를 야기할 우려가 있음. 개인이 추구하는 생애전망과 다양한 가족구성 및 친밀관계의 기획에 대한 선택을 존중하고 지지한다는 메시지를 근간으로 한 섬세한 정책설계가 필요함.
- 한편, 청년남성들은 전반적으로 결혼과 출산 등 가족구성 의향이 높고 이를 삶의 중요한 목표로 인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생계부양자 역할에 대한 성별 규범으로 인해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 가족구성 의향의 실현이 제약되거나 좌절될 가능성이 여성보다 높을 것으로 보임. 즉, 가족구성 의향에서 여성과 남성의 양상은 다르게 나타나지만, 성평등한 일과 가족의 역할 분담, 그리고 이러한 성평등한 기회실현을 통해 개인의 생애전망에 대한 낙관적 인식이 형성될 때 남녀 모두의 가족구성과 재생산에 대한 열망을 실현함으로써 저출생 대응에 대한 당사자 중심의 근본적 해법이 될 것으로 판단됨. 더불어, 유자녀 남성에게서 나타난 높은 부채 수준은 자녀 출산과 양육과정에서 경제적 부담이 크다는 점을 시사하며, 출산과 양육의 전제조건으로서 자녀출산 지원금과 양질의 육아환경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함.
- 혼인·혈연 등 현행 가족제도 중심의 가족구성 및 재생산(출산)의 방식을 선택하지 않는 청년들의 욕구를 존중하고, 개인들이 추구하는 다양한 파트너십과 가족구성 과정에서 출산 등 재생산 욕구를 지원하고 지지할 방안들을 모색해야 함. 최근 비혼출산 등에 대한 사회적 수용도가 증가하는 만큼, 서유럽 국가 사이에서 폭넓게 도입되고 있는 시민결합제도(civil partnership) 또는 등록동거혼과 같은 다양한 가족구성 형태를 제도적으로 인정하고 지원하는 정책이 요구됨.

참고문헌

국무조정실·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2년 청년삶실태조사」원자료 분석.

김은지·송효진·배호중·선보영·최진희·황정미(2019). 저출산 대응정책 패러다임 전환 연구(I): 청년층의 젠더화된 생애전망과 정책정합도 분석. 서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정세정, 류진아, 강예은, 김성아, 함선유, 김동진, 임덕영, 김영규, 김문길, 이혜정, 김기태, 김태완, 이원진(2022). 2022년 청년 삶 실태조사. 국무조정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통계청 보도자료(2024.11.27.). 2024년 9월 인구동향(「인구동향조사」).